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	□ 수소시대 새 밑그림 '수소도시 2.0 전략' 추진(2024.11.01) - 정부는 수소도시 2.0 전략을 통해 기존 수소도시를 고도화하고, 수소생태계 확산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며 수소 경제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- 수소생산, 배관 확충,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인프라를 강화하며, 산업, 복지,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수소 활용도 확대 - 해외 진출형 K-수소도시 모델 개발을 목표로,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실증 가능한 기술 연구도 병행하여 글로벌 수소도시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 - 정부는 수소도시법 제정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수소도시를 확장하고, 국민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
	지방	□ 안산시, 최초 넘어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(2024.10.31.) - 안산시는 29일 수소 시범도시 준공식을 개최하며 ‘H2 경제도시 안산’을 공식 브랜드로 발표. 행사에는 안산시 주요 관계자 및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안산의 수소 기반 도시 전환 비전을 공유 - 수소 시범도시는 수소 생산·저장·이송·활용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의미함. 안산시는 이를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 - 이번 사업에는 총 47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, 안산에서 생산된 수소는 단원병원과 504세대의 공동주택에 전기와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소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 효율 90%를 확보 - 수소 생산 시설은 하루 1.8톤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,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. 대부도 일원에 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구축, 향후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
		□ 포항시, 내달 12일 '2024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' 개최(2024.10.31.) - 포항시는 11월 1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‘2024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’을 개최하여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계획 - ‘수소연료전지, 미래 수소 경제 일류 국가로의 이행’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의 후원 하에 개최.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가 주최하며, 산·학·연 전문가들이 참여 -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 연사와 국내 전문가들이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.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연료전지 전문 기업 퓨얼셀에너지의 전 CTO 안토니 레오가 기조 연설자로 참여 - 행사장 내 홍보관 및 투자유치 상담장을 마련하여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. 향후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성과를 조명할 예정
		□ 포항시민단체 "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추진 촉구"(2024.10.31) - 포항환경연대를 비롯한 포항 시민단체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추진을 촉구하며, 범시민연대기구 설립을 제안. 포스코의 미래지향적 철강도시 발전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중심의 지역 변화 강조 - 포항시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 절차 단축을 요구하며, 철강산업 주도권 강화를 촉구. 최상목 기획부총리의 프로젝트 착공 지원 약속에 환영을 표명 - 포항시민단체는 수소환원제철소가 포항의 경제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,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 요청 - 포스코가 포항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점을 바탕으로,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과 정부의 동참 촉구
		□ ‘청정수소 입찰’ SK·한화 ‘참전’...포스코·고려아연 ‘시기상조’(2024.10.31) - 원주시는 장양리 공영차고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를 11월 4일 개시하여, 도내 수소버스 운영의 핵심 시설로 운영 계획. 시간당 수소 120kg을 충전할 수 있으며, 수소버스 120대 충전이 가능 -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작아 효율적이며, 충전 속도와 운송·저장 측면에서 유리함. 장양리 충전소는 SK플러그하이버스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건립 - 원주시는 기존 충전소 2곳 외에 추가 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량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. 지역 내 친환경 교통 중심지로서의 원주시 조성 목표 - 시 관계자는 이번 충전소 개시가 수소 연료를 이용한 교통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. 친환경 차량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대 계획
		□ 원주시, 4일 도내 최초 ‘장양리 액화수소 충전소’ 개시!(2024.10.31) - 원주시는 장양리 공영차고지 내 액화수소 충전소를 11월 4일 개시하여, 도내 수소버스 운영의 핵심 시설로 운영 계획. 시간당 수소 120kg을 충전할 수 있으며, 수소버스 120대 충전이 가능 -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작아 효율적이며, 충전 속도와 운송·저장 측면에서 유리함. 장양리 충전소는 SK플러그하이버스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건립 - 원주시는 기존 충전소 2곳 외에 추가 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량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. 지역 내 친환경 교통 중심지로서의 원주시 조성 목표로 설정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시 관계자는 이번 충전소 개시가 수소 연료를 이용한 교통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. 친환경 차량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대 계획 □ ‘그린수소’ 전국 첫 상업판매… “kg당 15,000원, 경제성 관건” (2024.10.31) - 제주도는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하며, 그린수소 연료로 운행하는 버스와 승용차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. 1kg당 15,000원에 충전 가격이 책정 -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청정 연료로,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임. 제주도는 중장기적 수요 확대로 생산 비용 절감 예상 - 생산 단가가 현재 판매 단가보다 높아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됨. 제주도는 정부 보조와 추가 지원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며,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대 -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 단가 하락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, 수요 증가를 통해 상업성을 높일 계획 □ 죽변항서 울진 수소산업의 미래 만나다… ‘수소국가산업단지’ 홍보 부스 운영 (2024.10.31) - 울진군은 죽변항 수산물축제 기간 동안 ‘수소국가산업단지’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입주 수요 확보를 목표로 진행 - 홍보 부스에서는 수소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소개하며, 지역 청정 자원과 연계한 미래 수소산업의 비전을 제공 - 울진군은 수소산업을 청정 에너지 중심지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축제 방문객들에게 산업단지와 수소도시의 청정 환경 혜택을 강조 - 손병복 군수는 울진이 원자력 청정수소의 최적지임을 알리고, 수소도시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도모할 계획을 언급 □ 박상수 시장 "수소산업은 삼척시 미래 100년을 이끌 주요사업" (2024.11.01) - 삼척시는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, 청정수소 드림시티H2DREAM! 을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발전을 강조 -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와 출하시설을 갖춘 유일한 지자체로서,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수행 - 삼척시는 수소산업이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동력으로 보고, 수소 저장·운송 클러스터와 액화수소 평가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- 박상수 삼척시장은 수소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언급
UAM	중앙	- (해당 없음)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지방	- (해당 없음)
우주	중앙	□ 우주청, NASA와 달 탐사 ‘아르테미스’ 연구 협약(2024.10.31) - 우주항공청과 NASA가 달 탐사 프로젝트 ‘아르테미스’에 관한 연구 협약 체결. 달 착륙선 개발, 우주 통신 및 항법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공동 연구 포함 - 아르테미스 3호에 탑승 예정인 우주인 4명, 2026년 달 남극 착륙 계획 수립. 달 표면 시료 채취와 귀환 임무 목표 설정 - 협약을 통해 한국 우주 기술력 향상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우주 탐사 리더로의 도약 기대. 달 및 심우주 탐사 분야 역할 중대 -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협약이 한미 우주 협력의 중대한 이정표임을 강조, 우주항공청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
		□ 우주항공청-방위사업청, 5대 우주강국 진입 위한 민·군 협력 가속(2024.10.31) -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, 본부장급 협업 회의 통해 5대 우주 강국 진입 목표로 민·군 협력 방향 논의하며, 초소형 위성체계 등 공동사업 추진 - 우주 부품 국산화 및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민·군 기술 협력 강화, 우주산업 경쟁력 향상 목표로 설정 - 양 기관은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, 우주 발사장 확충 및 국방 발사장 구축 방안 검토 -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기술 개발 성과 공유 및 우주 분야 전반의 민·군 융합 기술 발전 기대
		□ 우주항공청·나사 ‘태양 망원경’ 내일 발사(2024.11.04) -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망원경 ‘코텍스’가 11월 5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 예정, 태양의 외곽 대기 ‘코로나’를 집중 관측 - 코텍스는 태양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연구에 전환점을 제공할 중요한 관측 도구로, 우주 탐사에 기여할 기대 - 이번 발사는 한미 협력의 중요한 성과로, 우주 과학 연구와 국가 간 협력 확대에 긍정적 역할 전망 - 우주항공청은 NASA와의 공동 개발로 국제적인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고, 한국의 과학 기술력 홍보 기회로 활용 계획
		□ 법무법인 광장, 12일 '우주안보·산업' 관련 세미나 개최(2024.11.04) - 법무법인 광장,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- 세미나는 우주 산업 발전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4개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 - 한화시스템, LIG Nex1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산업 발전 방안 모색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세미나를 통해 우주산업 성장과 안보 지원 체계를 구축, 법률적 기반 강화로 우주 분야 경쟁력 제고 목표로 설정
		□ 韓 첫 '달 착륙선' 개발 신호탄...우주청, 항우연과 협약 체결(2024.11.04) -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(항우연), 독자적인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하며 한국형 달 탐사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- 2032년 달 착륙선을 목표로 독자 개발 진행, 연착륙 기술 실증과 달 표면 탐사를 통한 과학 임무 수행할 계획 - 달 착륙 기술은 고난도의 기술로 미국과 중국 등 소수 국가만 보유, 한국은 자체 기술력 확보 목표 설정 - 달 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 개발 역량과 탐사 능력을 강화하고, 미래 우주 경제에 적극 참여할 기반 마련
	지방	□ 양산시, 우주항공·방산용 실란트사업 추진 '탄력'(2024.10.31) - 양산시가 고성능 실란트 소재 국산화를 위한 관·연·산 협력 강화, 경남테크노파크와 KCL 등과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 추진 가속화 - 실란트 국산화 사업, 국내 방산 및 항공 우주 산업의 자립성 강화 목표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 중, 양산시의 열정과 의지 반영 - 양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활동 전개, 국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관련 예산 확보 성공.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- 이번 협력으로 첨단 산업의 국산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,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산업의 지역 경제 기여 전망
		□ 우주항공도시 맞는 국제공항으로...사천공항 활성화 전문가 머리 맞댄다(2024.10.31) - 경상남도,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목표로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.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발맞춘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- 사천공항 부지 확장,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신축 등의 연구 용역 진행 중, 항공운송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-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항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, 접근 교통망 개선 등 다각적 발전 방향 논의 - 경남도, 사천공항을 남중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목표로 설정
		□ 진주시, 우주부품소재 산·학·연 워크숍 개최(2024.10.31) - 진주시, 국내 위성 개발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우주부품소재 산·학·연 워크숍 개최. 진주시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연구 강화 - 워크숍, 우주부품 국산화와 소형 위성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학술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참석자들은 우주기업의 검증 이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, 우주부품소자의 현황과 활용 방안 탐구 -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강조
		□ 양산시, 우주·항공·방산 실란트 소재산업 허브단지 본격화(2024.10.31) - 양산시가 고성능 실란트 소재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 소재산업 허브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, 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- 실란트 소재 국산화는 우주·항공·방산 분야의 자립성과 성장을 도모하며,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사업의 성과 극대화 - 양산시와 관련 기관들은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확보,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- 이번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, 실란트 소재산업의 발전 목표로 설정
		□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"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"(2024.11.01) - 대전시의회,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 혁신 활동 강화.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전시와 협력 - 규제혁신특위는 우수 사례와 규제 완화 성과를 소개하며 대전 우주항공 특구 지정을 위한 핵심 관계자들과 논의 - 대전시는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활성화 도모, 대한민국의 우주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 목표로 설정 - 송환섭 위원장, 대전의 우주경제 허브 도시 비전을 언급하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지원 계획
		□ "국방·우주산업 도시 함께 만듭시다"(2024.11.05) - 대전시와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, 우주항공산업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 강화하며 국방·우주산업 도시로서 발전 목표 - 대전시는 대한항공 연구원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, 지역 내 우주 관련 연구소와 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계획 - 이장우 대전시장, 대전이 우주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 강조 - 대한항공 연구원 김경남 원장, 우주와 방산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 지원 의지 표명
		□ 경남도, 지방시대 엑스포서 '남해안 관광·우주항공·원전' 홍보(2024.11.06) - 경상남도,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'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'에 참가해 지역 발전 정책 홍보,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논의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도는 ‘남해안 관광벨트 조성’, ‘우주항공산업 육성’, ‘소형모듈원전 (SMR) 활성화’ 등 경남의 주요 발전 전략 소개 - 전시관 내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, 경남의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- 이번 엑스포를 통해 경남의 지역 경제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, 다양한 계층과 소통 기회를 마련
		□ "전남도, 우주산업 조직·예산 확충해야"(2024.11.05) - 전남도의회,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대 요구. 현재 인력 부족 문제 제기 - 신민호 의원, 전남이 아시아 우주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사체 클러스터와 앵커기업 유치 필요성 강조 - 김영록 전남도지사,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남 우주경제 완성에 대한 의지 표명 - 전남도의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발전 기반 마련 기대
		□ 고흥 ‘우주항공기 궁도대회’ 성황리 마무리(2024.11.05) - 전남 고흥 봉황정에서 제20회 우주항공기 궁도대회가 열려 1500여 명의 궁도인들이 참가 - 궁도 대회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이 진행, 강진군 양무정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고 다양한 부문별 우승자 선정 - 고흥군은 궁도 대회를 통해 전통 궁도를 보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우주항공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홍보 - 궁도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무예로, 고흥의 지역 문화와 우주산업의 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
		□ 박완수 "우주항공기술 중요, 서부경남 '아시아 물루즈'로 만든다"(2024.11.05) - 박완수 경남지사, 서부경남을 아시아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 발표,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로 설정 -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,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- 경남도는 선도기업 육성과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- 툴루즈와 같은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 서부경남을 육성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, 경제 성장 견인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"사천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 연내 결정돼야"(2024.11.03.) - 사천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이 연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 증가 -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의 사천시 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청 중심의 연구, 유관 기관 입주 필요성 제기 - 사천시는 용현면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계획, 신청사 위치가 이곳에 자리 잡길 희망 - 시 관계자는 신청사 입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□ 수소 저장·운반에 혁신기술… 해외 도입비용 1조원 아낀다(2024.10.31) -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은 수소 저장과 운반 비용 절감을 위한 ‘청정 수소 저장·활용 전략 연구단’을 출범. 수소 저장·운송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하고, 2029년까지 85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 수행 예정 - 수소 운반 방식으로 암모니아와 액상 유기물 수소 운반체(LOHC) 개발이 중점 추진. 수소와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장치 개발을 통해 해외 수소 수입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 - 청정 수소의 상용화에 필수적인 운반 기술 개발과 효율성 제고가 목표. LOHC 기반 수소 추출 및 활용 기술과 암모니아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계획 - 정부의 법 개정과 연구 협력이 과제로 남아있으며, 관련 인허가 문제 해결을 통해 실증 실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 필요
		□ 고가 소재 5%만 사용해도 수소생산 1.5배 늘었다(2024.11.03) -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은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고효율 촉매 기술을 개발, 1.5배 많은 수소를 생산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이리듐 사용량을 최소화 가능 - 이번 연구는 그린수소 생산 설비 구축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, 내구성 향상을 통해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 - KIST는 수소의 효율적 생산을 위해 탄소 지지체와 셀레늄 코팅을 도입하여, 촉매 성능과 내구성 제고 성공하며,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- 이 연구는 수소 생산 단가를 줄여 미래 친환경 수소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련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제시함.
		□ 액체수소탱크 '최후 보루' 안전밸브 성능평가장치 세계최초 개발(2024.10.31) - 한국전기연구원(KERI)은 액체수소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밸브 성능평가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. 초저온 상태의 액체수소를 안정적으로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저장·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- 안전밸브는 액체수소탱크의 압력이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기체 방출을 통해 압력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임. 새로운 평가장치는 액체수소의 기화 방지와 압력 조절을 극저온에서 구현 가능 - KERI는 추가 실험과 성능 개선을 통해 향후 대형 액체수소탱크 평가에도 적용할 예정이며, 기술이전을 추진.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에서 성능 평가에 활용될 전망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UAM	국가기관	□ 제4회 UAM 버티포트 공모전 수상작 발표(2024.11.06.) - 한국공항공사는 제4회 UAM 버티포트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'TEAM IAM'을 최우수상으로 선정. 이번 공모전은 UAM 산업 발전을 목표로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- 'TEAM IAM'의 아이디어는 고품군 섬들을 잇는 친환경 버티포트 설계를 통해 주목 받았으며, 우수상은 동서울터미널의 허브 설계를 제시한 'Among US'가 수상 - 장려상은 지방소멸 대응 및 수원역 활성화 설계팀이 차지, 베스트혁신상은 '주장박' 팀에게 돌아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제시 -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학생들의 열정과 혁신을 반영하여 UAM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 □ TS '2024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' 개최(2024.11.04.) - 한국교통안전공단이 UAM 기술 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를 개최. 6개 부문에서 대학생들이 성과 발표 - UAM 기체 창작, 공간정보, 버티포트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이뤄졌으며, 김천지역 고등학생 초청 행사도 진행해 UAM에 대한 인식을 높임. - 최우수상 수상팀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으며, 각 부문별 우수상과 베스트혁신상도 시상되어 참가자들의 열정을 격려 - 정용식 이사장은 미래 항공 분야의 주역이 될 인재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, UAM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우주	국가기관	□ 국가우주위 부위원장에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(2024.10.31) -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 우주공학과 교수 선출, 인공위성 시스템 및 우주 탐사 설계 전문가로 유명 - 방 교수는 카이스트 안보 융합연구원장과 국방 광역방어 특화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우주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기여 실적 보유 - 국가우주위, 대통령이 위원장인 범부처 조직으로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, 전문가 중심 운영 계획 - 이번 임명으로 국가 우주위의 기술적 전문성 및 정책 실행력 제고,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기대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"우주에선 서두를 필요 없다" 제7회 아트인사이언스 전시 개막(2024.10.31) - 기초과학연구원(IBS), 제7회 아트인사이언스 전시 개막. 과학과 예술 융합을 통해 연구의 경이로운 순간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 마련 - 전시 주제는 '우주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'로, 우주 탐험을 통한 심리적 변화 '조망 효과'에 대한 작품 전시 - 전시는 15팀의 작품을 선보이며 무료로 관람 가능. 우주 속에서의 여유와 깊은 시각적 경험 제공 -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, 우주 탐사에 대한 예술적 시각 제시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□ 민간 및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□ 수소연료 산업도 기가팩토리 건립도 '고전'(2024.10.31.) - SK E&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의 인천 청라 기가팩토리 건립 사업이 지연 상태에 놓임. 양사는 2021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관련 토지 매매 및 투자 협상을 진행했으나, 부지 매입 지연으로 진전이 미비 - 플러그파워와 SK E&S는 국내 수소산업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수소 기술 R&D 센터 및 기가팩토리 건립 구상을 진행 중. 그러나 수소 연료 산업의 고전과 주가 하락 등이 투자 지연 요인으로 작용 - 기가팩토리는 수소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, SK E&S는 “속도 조절이 필요하다”는 입장 표명. 수소 산업 내 투자 시점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, 우선 수소 생산 및 유통 단계에 집중 - 인천경제청은 청라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나 뚜렷한 대안 부재. 당국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며, SK E&S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
		□ 롯데글로벌로지스,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구축나서(2024.10.31) -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수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물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, 현대자동차 등과 협약 체결.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수소 화물차와 충전 인프라 확대 - 협약 내용에는 수소 충전소 설치, 수소 화물차 보급 확대, 수소 물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며, 2030년까지 수소 화물차 200대 운영 계획. 수소출하센터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소 공급 추진 -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와 버스 생산 및 유지 보수 지원을 제공. 수소 연료 충전소 확대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-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 물류를 강화하며, 협약을 통해 새로운 물류 표준 확립을 목표로 설정
		□ 현대차,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'이니시움' 공개(2024.10.31) -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‘이니시움’을 공개하며, 수소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. 이니시움은 내년 출시 예정인 승용 수소전기차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반영 - 수소를 사용한 청정에너지의 가능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며, '아트 오브 스틸' 디자인 언어를 적용. 차량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해 수소전기차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강조 - 현대차는 65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와 강화된 안전 성능을 갖춘 이니시움을 통해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극대화. SUV 캐릭터를 살려 실내외 활용성을 제고 - 이니시움은 수소 충전 루트 플래너와 V2L 기능 등 특화된 사양을 탑재하며, 현대차의 27년간 수소 기술 역사를 토대로 개발. 오는 글로벌 시장 공개도 예정
		□ 라이트브릿지, 글로벌 TOP3 산업장비회사 록핀(Rockfin)과 수소사업 MOU (2024.10.31) - 라이트브릿지는 독일 수소기술 전시회에서 에너지산업 장비 제조사 록핀과 유럽 그린수소 시장을 목표로 협력 MOU 체결. 수전해 기술을 통해 유럽 내 모듈형 수소 생산 시스템 구축 계획 - 록핀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에너지 장비 설계 및 제조 기업으로, 이번 협력을 통해 라이트브릿지의 모듈형 스택 기술을 유럽시장에 도입하고 확산할 예정 - 라이트브릿지와 록핀의 협력으로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으며, 양사 간 협력 관계를 통해 수소사업을 강화.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장비 산업 진출도 목표로 설정 - 이번 전시회에서 라이트브릿지 모듈형 스택이 각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, 라이트브릿지는 미국 수소시장 진출도 박차를 가할 예정
	대학교	□ 완주군-우석대-수소에너지고, 인재 성장모델 구축 협약(2024.10.31) - 완주군은 우석대학교와 수소에너지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 분야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. 수소 특화 국가산단 내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 구축 - 협약은 수소산업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, 수소 관련 계약학과 개설, 기숙사 제공,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포함 - 완주군은 지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, 지산학연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 -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을 미래 신성장 동력 중심지로 발전시키고,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할 계획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□ 청정수소·암모니아 협력 확대 모색... '청정수소 국제포럼' 개최(2024.10.31) - 청정수소 국제포럼이 개최되어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산업의 협력 방안과 기술 동향이 논의됨. 한국수소연합과 청정암모니아협의체가 협력 MOU를 체결하여 청정에너지 사업 협력 추진 - 포럼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의 산업적 가능성을 논의하고,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- 한국수소연합은 청정수소가 미래 에너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강조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하며, 국내외 기업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 - 청정암모니아협약체는 기술 상업화 및 글로벌 무대 진출을 목표로 두고,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
		□ 수출입물품 분류체계에 이차전지·전기차·수소연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품목 신설(2024.11.01) -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)가 개정되어 이차전지, 전기차, 수소연료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품목이 추가되며, 수출입 물품의 분류체계 개선 - 개정 취지는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 안전 보호이며, 오류 교정을 통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높임을 목표로 설정 -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수소불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, 관련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 - 개정된 HSK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, 수출입 물품 분류 오류를 방지하고 기업의 통관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
UAM	민간기업	- (해당 없음)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	기타	- (해당 없음)
우주	민간기업	□ 포스코그룹, 고순도 희귀가스 국내 생산 본격화... “반도체·우주산업 발전 기여” (2024.11.05) - 포스코중타이어솔루션,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공장 착공으로 반도체 및 우주산업의 국내 공급망 강화 목표로 설정 - 희귀가스는 반도체와 인공위성 추진연료에 필수, 현재 대부분을 수입 의존 중이나 내년부터 국내 생산 계획 - 국내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, 국내 첨단산업 성장에 큰 기여가 예상 - 포스코는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통해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, 산업가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
	대학교	□ 국방대-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업무협약 체결(2024.11.03.) - 국방대와 KAI, 항공우주 인재 양성과 방산 기술 발전을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- 협약을 통해 국방방위산업과 항공·우주 분야의 연구와 인력 교류, 학술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 - 외국군 장교 대상 방산 견학과 문화 체험을 지원, 국제 네트워크 강화 목표 - 임기훈 국방대 총장은 협력을 통해 방산 발전과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 □ [현장취재]H-우주미니클러스터 출범식(2024.11.03.) - 한남대에서 열린 H-우주미니클러스터 출범식,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관군 협력 강화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황철호 한남대 센터장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와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 - 대전 우주산업 육성계획 발표, 향후 5년간 우주 헤리티지 확보와 초소형 위성 개발 추진 계획 - 대전은 우주 핵심기술, 인재 육성 특화지구로서 우주 산업의 글로벌 선도 목표를 갖고 역량 강화에 집중
	해외	□ 中, 유인우주선 '선저우 19' 발사... 첫 여성 민간 우주비행사 탑승(2024.10.31) - 중국이 유인우주선 '선저우 19호' 발사, 3명의 우주비행사 탑승하여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과학 실험 수행. 이번 발사로 중국의 우주 탐사 역량 과시 - 선저우 19호 탑승자 중 왕하오쩌, 중국 첫 민간 여성 우주비행사로 심우주 탐사 연구 담당 경력. 중국 항공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부각 - 우주비행사들은 톈궁에서 다양한 과학 실험과 임무 수행 후 6개월간 머무를 예정. 우주 탐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 증명 기대 - 왕하오쩌는 중국 우주 탐사의 미래에 대한 강한 열정을 표현하며, 임무 수행 후 귀환 예정
	기타	- (해당 없음)

-끝-